

상해진단서

등록번호 : 10810743
연 번호 : 2020-00053

환자의 성명	최원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741107 - 1168118
환자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곡로197번길 121 (성석동) 8층 102호 [전화번호: 010 - 4572 - 2311]		
병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상적 추정 <input type="checkbox"/> 최종 진단	좌안 망막열공		필명분류기호 H33.39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	2020년 09월 28일	진단 연월일 2020년 10월 08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타인의 주위에 좌안부 가격 당항 (환자본인 진술) 좌안 후유리체박리와 동반된 망막열공 확인되었으며, 후유리체박리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과정이며, 외상, 수술 등에 의해 더 일찍 유발될 수 있음		
상해 부위의 정도	좌안 망막 주변부 열공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 기간	2020년 10월 08일부터 2020년 11월 04일까지 (진단일로부터 28일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좌안 광막레이저치료술 시행함.		
입원 - 퇴원 연월일	입원일: 년 월 일부터	퇴원일: 년 월 일	
비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의료기관 명칭: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곡로 27

의사 연혁번호 제 80783 호

성명: 오영환

오영환

작성 방법

1. 환자와 인격사양은 진찰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관 안료 권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 - 공립대학 학생증, 근무의증, 건강보험증, 외국민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는 주민등록증 - 신분,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을 적절하여 []에 표시를 하고, 질병명만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필명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상해진단서

등록번호 : 10823267

연번호 : 2020-00051

환자의 성명	강순영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490709 - 2169121
환자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197번길 121 (성석동) CG파크빌 101동 102호 (전화번호: 010 - 4572 - 2311)		
병명 <input type="checkbox"/> 임상적추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종진단	(주)traumatic compression fracture of spine, lumbar region, closed(상해 발생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질병분류기호 S32.090
발생 또는 상해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2020년 10월 21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요인 상해의 원인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척추부위 압박성 골절		
상해 부위의 정도	요추 3번 골절 압박성 골절		
입원의 필요 여부	현재로서는 외래 치료 중		
외과적 수술 여부	추추 골절된 부분의 안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술 필요할 수 있음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명확하지 않음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골절부위 안정화 후 통상생활 가능함		
직사의 가능 여부	가능함		
상해에 대한 소견	요추 3번 압박성 골절에 대해서 3주간의 안정치료 요함		
치료 기간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04일까지 (간단일로부터 22일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3주 이상 안정 치료 통해 압박성 골절의 안정화를 꾀함.		
입원·퇴원 연월일	입원일: 년 월 일부터	퇴원일: 년 월 일	
비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의료기관 명칭: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의사 면허번호 제 95072 호

성명: 문경현

작성방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관 단표 등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갑·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본·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추정"과 "최종진단" 중 적당하여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상해진단서

등록번호 : 10887555
면 번호 : 2020-00052

환자의 성명	최병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420119 - 1168135
환자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삼석로 111-45 (삼석동) (전화번호: 010 - 7710 - 4143)		
병명 <input type="checkbox"/> 일상적추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종진단	(주)spinal cord injury[척추 부위의 손상] (부)spinal cord injury, cervical[경부척추의 손상] (부)cervical myelopathy[경추의 척수병증]		질병분류기호 T09.3 S14.1 G95.9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	2020년 10월 이 일	진단 연월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경추 협착증이 있던 환자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협착된 부위의 신경 압박이 심해져서 발생함		
상해 부위와 정도	MRI 상 경추4-5면 6-7면의 척추 손상의 흔적 보임		
입원의 필요 여부	신경손상으로 보행 장애 및 소변 장애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		
외과적 수술 여부	2020년 10월 20일 경추 후궁 확장수술 시행함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 있음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시간을 두고 경과 관찰해 보아야 명확한 가능성 확인할 수 있음		
식사의 가능 여부	가능		
상해에 대한 소견	경추 협착증이 있던 것으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협착된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 있음		
치료 기간	2020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01월 31일까지 (진단일로부터 106일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고 기능 회복의 정도를 평가하여 재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입원·퇴원 연월일	입원일: 2020년 10월 18일부터	퇴원일:	년 월 일
비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의료기관 명칭: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석로 27

의사 면허번호 제 95072 호

성명: 문경현

작성방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공립대학 학생증, 군우증명,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호적,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일상적추진"과 "최종진단"을 적절하여 []에 √ 표시를 하고, 질병코드 한자로 적고 영어표기를 영문으로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2. 피해의 정도

- ㄱ. 최용순은 폭행사건으로 좌안 망막열공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서 첨부)
- ㄴ. 최봉조는 척추부위의 손상등으로 10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첨부)
- ㄷ. 강순영은 요추 3번 압박성 골절로 인해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서 첨부)

3. 피고인의 피해복구 노력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찾아와 연락처를 적어주며 병원비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두차례 정도 검사비용만 지불하고,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 되니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4. 결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누구이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 폭언과 폭행을 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사과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장모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 최용순은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준엄한 법과 질서가 바로설 수 있도록 엄벌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2020. 10. 22.

탄원인 : 1. 최 봉조
2. 강 순영
3. 최 용순


(인강순영)

(인최용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11호 검사님 귀중

의견서

사 건 2020 형제 31737

탄 원 인
결 피해자 최봉조 외 2명

피 고 인 성명불상

탄원취지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이유

1. 사건의 경위

2020. 9. 30. 저녁8시경 거실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자 강순영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야 이년아” “십팔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최용순이 왜 어머니 빨 되는 사람에게 욕을 하냐고 물으니 가해자는 너 당장 나오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최용순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성명불상의 피고인으로 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놀란 강순영과 최봉조가 밖으로 나와 일방적인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나와서 일방적인 폭행을 말려서 피해자들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분풀이가 안되었는지 돌을 들어 장독대와 이중거실창문을 향해 던졌고,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 강순영(모, 1949년생)이 폭행을 말리러 나갔다가 피의자로부터 팔목이 잡혀 내동댕이쳐지셨고 뒤따라 나간 최봉조(부, 1942년생) 역시도 피의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혀 주차장 구석에서 끌려가 발로 짓눌러졌었습니다.

이 같은 피의자로부터 당한 무자비한 폭행으로 아버지는 목뼈 쪽 신경을 다치게 되어 입원하여 목 수술을 했고 진단은 약 15주가 나왔습니다. 경추 4-5번, 6-7번에 척수손상을 입었고, 신경손상으로 걷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변을 수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소견으로는 신경손상으로 인해 기능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동댕이쳐져 요추 3번 급성 압박성 골절이 생겨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형은 좌안 망막열공으로 망막레이저방벽술을 실시하고 약 4주간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평화로운 가정의 일가족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요? 아버지는 80 노인이고, 어머니 역시도 73살 노인인데, 제대로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체 건장한 젊은이가 노약자를 대상으로 잔인한 폭행을 퍼부을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피의자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사람을 이토록 죽도록 때리고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피의자의 이처럼 무자비한 만행으로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지금 이 시각에도 멀쩡하게 밖을 활보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아 두 번 다시는 저희 가족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 10. 22.

위 단원인(서명)

최예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11호 검사실 귀중

엄벌 탄원서

- 사 건: 2020형제31737호
- 수 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11호 검사실
- 피탄원인: 피의자
- 탄 원 인: 최예한(경기도 일산 동구 동국로197번길 121, 디에스 파크빌 101동 B102호, 010-4645-8852)

존경하는 검사님!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탄원을 드리는 것은 다행이 아니오라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탄원취지

저는 묻지마 폭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가족의 막내 최예한입니다. 피의자가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려는 진지한 의사 없이 병원비조차도 책임질 생각도 없는지 처음과 다르게 연락도 회피해,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만 안겨주고 있고 반성이 없는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탄원내용

저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 가족의 일원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저를 제외한 피해자 세 사람만 집에 있었습니다. 2020. 9. 30. 경기도 일산 동구 동국로 197번길 121, 디에스 파크빌 101동 B102호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이 열려있었고, 피고인이 어머니께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형님이 피의자에게 무슨말이냐고 하니, 피의자가 극심한 폭언과 형님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무슨 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확인차 피해자인 최용순(형, 1978년생)이 밖으로 나가자 폭언, 폭행을 가해 안정이 파손되면서 눈을 쫓겨 안구손상을 입었고, 넘어지면서 팔꿈치 상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꼭 읽어주세요

피해자인 저의 세식구는 모두 기저질환 환자입니다
2020년 9월 30일 불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 최봉조문. (대장암, 척추수술환자) 입니다
피해자 강순영은 (심장오류증, 머리스텐드) 입니다
피해자 최용순은 제야들. (오년이넘게) 환자입니다

이런 사람. 무자비로 때린 가해자를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온 동네를 활부라기 죄책감 하나없이

직감에 돈벌로 다닙니다. 핑치기 반성도 없이로
하루백번리 강력할 처벌 부탁드립니다 (강순영)



2006년 9월 30일 이후

(가해자가) 3일 뒤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치료비는 다 내준다더니 (가해자가)

병원에 몇번와서 돈을 내 주다가

피해자인 최봉조가 목수술 한다고 입원할날 (가해자가

전화로 이제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니 그뒤로

피해자 전화까지 안받긴 하니 피해자인 저의가족은

약올래요

(가해자를 배반시일 내로 구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